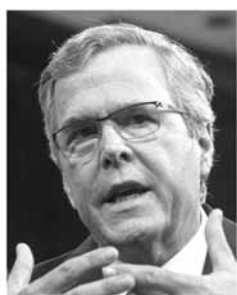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VS



젠티 부시



스콧 워커



마르코 루비오



마이크 허커비



벤 카슨



랜드 폴



테드 크루



크리스 크리스티



존 카시치

트럼프 독주 체제...美 공화당 첫 토론회

역대 최대 규모인 17명이 뛰어든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첫 TV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을 올린다.

4일 토론회 참석을 통보받은 상위 10명의 후보는 '1부 리그'에 들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 여유도 없이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확 끌어올리기 위한 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예상 밖의 압도적 1위를 질주하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두를 굳힐 수 있을지, 트럼프에게 여론의 관심을 송두리째 빼긴 다른 유력 후보들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첫 TV토론회, 후보간 희비 엇갈려 = 17명 중 7명 탈락=후전을 되풀이하던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17명이 드디어 '메이저리거'와 '마이너리거'로 나뉘었다.

미국 폭스뉴스는 오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 10명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 순서대로 10명의 참석자, 7명의 탈락자가 가려졌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젠티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예상대로 통과했다.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마이

지지도 순 대선후보 10명 선정...경선 사실상 개막

트럼프, 예상 밖 1위에 젠티 부시 등 주도권싸움 주목

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존 카시치 오하이오 주지사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후보로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IP) 최고경영자는 고배를 마셨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조지 파타키 전 뉴욕주지사,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제임스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도 낙방했다.

◇트럼프 독주체제 굳힐까=부시 등 '트럼프 대책'도 주목=폭스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TV토론회는 공화당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인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공식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가 독주 체제를 굳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멕시코 이민자들은 물론 같은 공화당 경쟁자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막장 캐릭터'가 부정적 이미지로 되돌아올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대중적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유명 서바이벌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에 오랫동안 출연해 경쟁자들도

다 훨씬 더 방송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일단 트럼프에게 유리한 요소다.

그러나 트럼프가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는 '네거티브'식 토론에 몰두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은 물론 경선의 전체 판도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트럼프가 브라운관에서 막말 파문을 벌여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면 분위기가 반전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또다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게 돼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홍보전문가인 카빈 겔로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며 "미국인은 낙관론자를 사랑한다"고 전망했다.

젠티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등 다른 유력 후보가 어떤 '트럼프 대비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시 전 주지사는 트럼프와의 막말 공방을 피하고 외교 정책이나 각 주(州)의 주요 현안을 공부하며 정책 대결로 토론회를 주도할 계획이다.

워커 주지사는 보좌관들에게 '가상의

트럼프' 역할을 맡겨 실전과 같은 토론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향한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방어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트럼프에 밀린 나머지 후보들은 1인당 8~10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 기회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어떤 의제로 공방 벌일까=첫 TV토론회에서는 불법 이민, 낙태, 총기 규제, 복지재정 등 전통적인 보수 의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막말로 급부상한 불법 이민 문제는 지난 3일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폭스뉴스 토론회의 전초전으로 열린 '보터스 퍼스트 포럼'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Barack Obama 정부의 이민 정책에 비판을 가하면서 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의식해 대체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 등 극단적인 주장까지는 펴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적 신분 부여를 지지해 공화당 내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던 부시 전 주지사는 토론회를 사흘 앞둔 3일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 전략을 발표해 보수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경우 과거 낙태와 보편적 건강보험 정책을 옹호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력과 관련해 경쟁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위안부 문제 일본만 타박 죄송”

日 동영상 사이트 인터뷰

일왕을 ‘천황폐하’로 지칭

일본 옹호 충격 발언 물의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사진) 씨는 “우리가 위안부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주 일본만 타박하는 뉴스만 나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일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이제 잘살게 됐으니 한국의 힘으로 피해자를 모셔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근령 씨는 “정치권에서 하는 말만 주로 언론에 실려서 나갔으므로 그런 뉴스뿐”이라며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기를 바란다”고 일본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당부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 삼는 것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며 “월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근령 씨는 “실마니 아베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시면서 ‘앞으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참배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자신이 김 전 부장의 유족이나 지인이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이 과거사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가 바뀔 때마다 반북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왕을 지칭할 때 ‘천황폐하’라고 일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근령 씨는 “일본은 황국사관(皇國史觀)을 근본으로 한 천황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선거에 의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정책을 펴나간다고 해도 천황께서 어떻게 언급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근령 씨는 “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 분께서 왜 천황폐하를 그렇게 알현(謁見,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 뵈)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느냐”며 “한 동네에서도 이웃과 자꾸 서로 타박하면 장피하듯이 과거문제를 가지고 자꾸 갈등을 빚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참피한 노릇”이라고 한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北·中 밀랍전시관 공동 건립 ‘온화 기류’

김일성 생가 있는 만경대 지역

김정은, 적극 화해 신호 분석

북한과 중국이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지역에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의 인물상 등이 포함된 밀랍상 전시관을 공동 건립한다.

이번 밀랍상 전시관 공동 건립 소식은 장기간 냉각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적극적으로 ‘화평’ 복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배제가 주목된다.

5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장모레이(章默雷) 중국 위안납상관(偉人蠟像館·밀랍인형관) 관장은 중국 위안납상관과 북한의 만수대에 술창작사가 공동으로 평양 만경대에 ‘밀랍인물상 전시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양의 중심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만경대는 북한에서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 고향집’, ‘태양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환구시보는 북한이 이곳에 전시관 건립을 허용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전시관은 김일성 주석 생가에서 불과 수 백m 떨어진 곳에 설치된다.

전체 부지는 5000㎡ 규모로, 조선노동당 혁명투쟁사와 지도인물을 전시하는 ‘혁명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각국 원수들과 정부수뇌 등을 전시하는 ‘우의관’, 건국 이후의 영웅과 모범인물을 전시하는 ‘공훈관’으로 구성된다.

그중에는 과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지도자들 남상도 포함돼 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밀랍상 전시관 건립은 오는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추진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냉랭해진 북중 관계 복원에 직접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 보내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화해신호로도 해석된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노병대회 축하연설에서 중국인민지원군에 두 차례 경의를 나타낸 데 이어 하루 뒤인 27일에는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전사자 묘지)에 화환을 보냈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수비드 떡갈비

12,500원

수비드 삼겹살

14,500원

취학어린이(초등학생)

8,500원

미취학어린이

5,000원

수비드 떡갈비

9,000원

수비드 삼겹살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490 663 952 953" data-label="Complex-Block">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세대교체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외벽 패턴

외벽 패턴

외벽 패턴

외벽 패턴

홈페이지 방문신청서(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량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